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PELLSLINGER
가제 : 마법사
저자 : Sebastien de Castell
출판사: Zaffre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5월 4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벨기에, 카탈루냐, 덴마크, 체코,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절벽에 떨어질 듯 말 듯한 긴장감, 속도감, 유머, 삶의 교훈과 함께 거침없는 다람쥐를 만날 수 있는 이야기" – 「선데이 타임스」**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 마법사로 인정 받지 못하면 열등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평생을 마법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늘 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세상이 있다. 이곳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팔에 금속으로 된 띠가 둘러진다. 남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법, 불과 빛의 마법, 마음을 조종하는 힘을 발휘하는 마법, 저 먼 곳까지 보고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는 마법, 몸을 조종하는 마법, 바람과 공기를 다스리는 마법까지 총 여섯 가지로 이루어진 이 띠는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띠 속에 새겨진 각각의 마법을 나타내는 문신이 잠들어 있다가 아이가 그 중 마법의 능력을 획득하게 되면 밝은 빛으로 빛난다. 가장 유능한 마법사는 여섯 개의 띠에서 모두 빛이 나는 것, 즉 그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그 중 몇 개가 자신의 능력이 될 것인지는 열여섯이 되어 테스트에 통과하고 밴드에서 문신이 드러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건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 받지 못하면 '샤텝'으로 불리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 마법사들의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일류 마법사로 인정 받는 아버지와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의 온갖 병을 치료해온 어머니를 둔 켈렌은 부모님처럼 특별한 마법사가 되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랐다. 심지어 어린 여동생까지 이미 엄청난 마법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곧 열여섯 살 생일을 맞이할 켈렌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져만 갔다. 게다가 마법사 세계의 최고 어르신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마법사 대표로 켈렌의 아버지가 점쳐지는 상황이라 켈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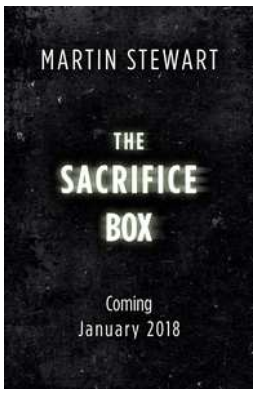
은 다가올 마법 테스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큰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켈렌의 동생만 아는 충격적인 문제가 켈렌을 미친 듯이 괴롭혔다. 언젠가부터 마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예 하나도 먹히지 않는 일도 빈번해진 것이다. 학교에서 마법 주문은 누구보다 잘 외우고, 한 번 주문을 외우면 실행률이 가장 뛰어났던 우등생이었던 켈렌에게 왜 이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워낙 영민한 켈렌은 속임수로 자신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숨겨 왔지만, 곧 실시될 테스트 전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자칫 마법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자신이 '샤텝'으로 분류되면 가장 권위 있는 마법사 집안이라는 자랑스러운 가족의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할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엄청난 불명예를 맞게 될지도 몰라 전전긍긍하던 켈렌은 어느 날 페리우스라는 여행자를 만난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기록하는 '아고시' 부족 사람으로, 예로부터 이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는 특별한 존재였다. 페리우스는 위기에 처한 켈렌이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도전하도록 이끌고, 때로는 마술 도구로, 때로는 무기로 사용하는 카드를 쥔 페리우스의 위트 넘치는 지휘에 멋모르고 따르던 켈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어쩌면 켈렌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는 페리우스는 비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너무 혈기왕성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마구 저지르는데, 과연 이 특이한 여행자는 켈렌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귀엽고 깜찍한 외모와 달리 먼 옛날 사라진 사악한 마법사 '쉐도우블랙'을 상징하는 무시무시한 다람쥐까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흘러간다.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될 판타지 시리즈의 첫번째 이야기로 2권은 올해 겨울 출간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세바스티안 드 카스텔(Sebastien de Castell)은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으나 졸업 후 음악가, 옴부즈맨, 인터렉티브 디자이너, 교사, 프로젝트 매니저, 배우, 상품개발 전략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면서 글을 쓰고 지금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일할 계획이다.



제목 : THE SACRIFICE BOX
가제 : 희생 상자
저자 : Martin Stewart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PRH) Children.
발행일: 2018년 1월 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스티븐 킹의 소설 『*The Body*』,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Stranger Things'*를 떠올리게 하는 초자연적 현상을 둘러싼 스릴러**

*** 어느 여름 숲 속에서 발견된 상자, *4*년 뒤 다시 시작된 악몽**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우정을 약속하는 것.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약속은 열한 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진지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여름 내내 함께 해변에서 뛰놀며 특별한 우정을 쌓은 셉과 아클, 맥, 램, 해들리는 비가 세차게 내린 뒤 숲에서 커다란 상자를 발견한다. 빛이 잘 들지 않는 숲 속 깊은 곳, 땅 위로도 굵게 뒤엉킨 나무 뿌리와 사이, 비에 쓸려간 흙 아래 감추어져 있다가 모습을 드러낸 상자는 얼핏 봐도 수백 년은 된 오래된 물건 같았다. 셉의 주도로, 다섯 친구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손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원래 가려던 외국에서 진행된다는 여름 캠프에 참석하지 못해 우연히 아이들과 어울리게 된 램, 원래 오래 전부터 어울려 놀던 친구였던 맥과 아클, 그리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아이들 때문에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쫓기고 있는 해들리까지 모두가 각자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을 차례로 내놓는 희생을 선택했다. 시계를 훌렁 벗어 1초 만에 상자에 넣은 맥과 달리, 셉은 결심하기까지 한참을 주저했다. 셉이 가져온 물건은 오래되어 털이 납작해진 곰 인형이었다. 엄마가 선물한 그 인형에는 셉의 남모를 비밀이 담겨 있었다. 얼마 전 엄마가 크게 아파 병원에서 며칠이나 입원을 해야 했을 때, 셉은 늘 곰 인형을 베개 삼아 엄마 얼굴 옆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 대신 셉을 돌봐준 외할머니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 뜻밖의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엄마가 죽는다면, 나는 이 섬에서 벗어나 본토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문득 떠오른 그 생각이 얼마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지, 셉 스스로도 당혹스러웠던 그 흥분감은 즐거움이기도 했고 깊은 죄책감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후 곰 인형 버나비를 볼 때마다 떠올랐다. 이런 기억 때문에 셉은 한참을 주저한 후에야 버나비를 묵직한 상자의 뚜껑 아래로 던져 넣었고, 마침내 '희생 의식'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절대 혼자서 상자를 찾으러 오지 말 것. 절대 어두워진 후에는 상자를 열지 말 것. 절대 상자에 바친 물건을 다시 꺼내가지 말 것." 다섯 명의 아이들은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일명 '희생의 규칙'이라 불리는 문구를 읊었고 상자는 숲 속에 남겨졌다.

4년의 시간이 흐른 뒤, 셉은 여전히 경찰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섬에 유일한 고등학교에

진학해 아침마다 똑같은 길로 등교하고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도 변함이 없지만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아클, 맥, 램, 해들리 누구와도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느 때와 똑같이 시작된 아침, 새벽에 일어나 의자에서 졸던 엄마가 셉에게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창 하루 종일 붙어 지내던 시절 이후 벌써 몇 년째 집에 놀러 온 적도 없는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엄마의 꿈에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셉을 찾더라는 것이다. 4년 전 여름방학, 우연한 기회가 겹쳐 단짝이 되었던 다섯 명의 아이들은 방학이 끝난 뒤 각자 학교로 돌아가 원래 절친했던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버렸다. 마치 여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이 좁은 섬 안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서로가 외면하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채로 남처럼 지내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희생 의식까지 치렀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 진심 어린 다짐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을까?

셉의 엄마가 꾼 꿈이 신호탄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 날부터 셉과 나머지 네 아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상자에 던져 넣었던 물건들이 하나씩 눈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셉은 의식을 치르던 날 나무 사이에서 어른대던 사람의 형체를 기억해내고 혹시 아이들의 비밀 의식을 몰래 지켜본 누군가가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하지만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4년이나 지나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아이들 중 누군가가 그 약속을 깨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면? 소원해진 다섯 아이들은 다시 나타난 희생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4년 전, 그 장소에서 만난다. 그런데 무턱대고 해버린 희생의 약속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상자가 바라는 건 물건의 희생이 아닌, 진짜 사람, 그것도 다섯 명 중 한 사람의 목숨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숲 속에서 이 상자를 발견한 것이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밝혀진다.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이 큰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신선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줄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틴 스튜어트(Martin Stewart)는 대학 강사, 재활용 기술자, 골프 캐디로 일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했다. 데뷔 소설 『Riverkeep』은 '가디언 어린이 소설상 Guardian Children's Fiction Prize)' 후보에 올랐다.